

독일의 통일과 교회의 역할: 크리스티안 뤼러(Christian Führer)를 중심으로*

최용준**

논문초록

본 논문은 '조용한 개신교 혁명'이라 불리는 동서독의 통일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라이프치히(Leipzig)의 니콜라이교회(Nikolaikirche) 및 그 교회의 담임 목회자였던 크리스티안 뤼러(Christian Führer, 1943-2014)의 사상과 사역을 탐구하기 위한 고찰이다. 이를 위해 먼저 뤼러의 생애를 다섯 단계로 나누어 살펴 본 후 그가 섬긴 니콜라이교회가 왜 평화의 상징인지를 세 가지로 설명한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뤼러가 주도한 평화기도회 및 그의 평화 사상이 어떤 의미에서 중요한지 다섯 가지로 나누어 분석한 후 이것이 어떻게 월요시위로 연결되고 발전되어 마침내 평화적인 무혈 통일 혁명으로 열매를 맺게 되었는지를 논의한다. 나아가 통일 이전에 이미 존재했던 동서독 교회의 유대관계를 살펴 보면서 독일의 통일에 개신교회가 어떻게 배후에서 또한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언급한다. 마지막으로 뤼러의 사상과 사역이 한국사회와 교회에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결론으로 정리한다.

주제어 : 독일의 통일, 독일 개신교회, 니콜라이교회, 평화기도회, 비폭력

* 이 연구는 한동대학교 교내연구 지원 사업 제 20140164호에 의한 것임.

** 한동대 글로벌에디슨학부 기독교철학 교수

2015년 8월 30일 접수, 11월 1일 최종수정, 11월 3일 게재확정

I. 서론

매년 10월 3일은 대한민국과 독일이 동시에 국경일로 지키는 날이다. 하지만 그 의미는 매우 다르다. 한국에서는 이 날을 개천절로 지키지만 독일은 이 날이 통독 기념일(Tag der Deutschen Einheit)이기 때문이다. 독일의 통일은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방식으로 일어났다. 그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른 국제 정치적 변화 및 지도자들의 역할도 물론 중요했지만 적어도 독일 내에서는 개신교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독일 통일은 ‘조용한 개신교 혁명’이라고도 불린다. 지금까지 독일의 통일에 관해 국제 관계, 정치적 내지 법적인 면에서 분석한 연구도 적지 않았고(신용호, 1998; 양창석, 2011; 염돈재, 2010; 전수진, 1995; Kohl, 김주일 역, 1998; Scheuch & Scheuch, 김종영 역, 1992 등) 교회의 역할에 대해서 다룬 논문 및 저술도 있었으며(김기런, 2001; 김영한, 1994; 박명철, 1997; 정일웅, 2000; 주도홍, 1999) 양자의 관계에 관한 학술 모임들도 있었다.¹⁾ 하지만 독일의 평화적 통일에 있어 가장 결정적인 도화선이 된 라이프치히(Leipzig)의 니콜라이교회(Nikolaikirche)에서 담임 목회자로 영적 리더십을 발휘하여 월요평화기도회를 인도하였던 크리스티안 뤼러(Christian Führer, 1943-2014)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그의 사상과 사역에 초점을 맞추려고 한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먼저 그의 생애에 있어 주목할 점들을 다섯 가지 단계로 나누어 살펴 본 후 평화의 상징인 니콜라이교회에 관해 세 가지로 간단히 설명하겠다. 그 후에 이 교회에서 뤼러가 주도한 평화기도회 및 그의 평화 사상에 관해 다섯 가지 중요한 점들을 언급하겠으며 이것이 어떻게 월요시위로 연결되었고 전개되었는지를 서술하겠다. 그 후 교회에서 시작된 이 기도 운동이 어떻게 마침내 평화적인 통일로 열매 맺게 되었는지를 고찰하겠다. 나아가 통일 이전에 이미 존재했던 동서독 교회의 유대관계를 살펴 보면서 독일의 통일에 개신교회가 어떻게 결정적인 역할을 했음을 밝힌 후 뤼러의 사역 및 독일의 통일이 남북한의 통일과 한국 사회 및 교회에 주는 함의를 논의함으로 결론을 맺도록 하겠다.

1) 가령, <http://www.kidok.com/news/quickViewArticleView.html?idxno=35128>,

II. 독일의 통일과 교회의 역할

1. 뤼러의 생애

뤼러의 생애는 크게 다섯 단계로 구분해 볼 수 있다. 가장 먼저 주목할 부분은 그의 신앙적 가문이다. 그는 1943년 구동독 지역인 랑언로이바-오버하인(Langenleuba-Oberhain)의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났다. 그의 조상들은 1732년 가톨릭 대주교였던 피르미안(Firmian)의 추방명령으로 그들의 고향인 잘쯔부르크(Salzburg)를 떠날 수밖에 없게 되자 결국 약 2만 2천여 명의 개신교도들과 함께 지금의 독일 작센(Sachsen) 지역으로 이주하게 되었다. 하지만 그곳의 아우구스트(August) 대제가 폴란드의 왕이 되기 위하여 개신교에서 가톨릭으로 개종하자 다시 그곳에 더 이상 머무를 수가 없어 프로이센(Preußen)으로 피하게 되었으며 그 중 몇몇 사람들은 라우지쯔(Lausitz) 지역까지 오게 되었는데, 이들 중 하나가 바로 제1대 뤼러인 세바스티안 뤼러(Sebastian Führer)였고 그 후 이 가문은 목회자나 교회 지휘자 또는 직물을 짜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전형적인 개신교 집안이었다(Führer, 최용준 역, 2012: 32-33). 그의 부친은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독일군 군목으로 사역하다가 포로가 되었고 종전 이후 석방되어 고향으로 돌아와 목회를 계속하였다.

두 번째로는 그의 학력 및 소명에 대한 자각이다. 뤼러는 김나지움(Gymnasium)을 다닐 때부터 부모 곁을 떠나 독일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Martin Luther)가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했던 바르트부르크(Wartburg)성이 있고, 음악의 아버지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Johann Sebastian Bach)가 출생한 아이제나흐(Eisenach)에 있는 에른스트-아베-김나지움(Ernst-Abbe-Gymnasium)에서 공부한 후, 1961년부터 1966년까지 라이프치히 대학²⁾에서 개신교 신학을 공부하였다. 당시 동독에서 장래가 촉망되는 청년이 신학을 공부한다는 것은 모든 사람으로부터 어리석게 보이는 선택이었다. 전혀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직업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부친의 영향을 받아 자신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였고 그 후에도 이 소명에 대해 결코 후회한 적이 없었다(Führer, 최용준 역, 2012: 109).

2) 당시에는 칼 마르크스(Karl Marx) 대학이라고 불렀다.

그의 생애에서 세 번째로 중요한 부분은 대학을 졸업한 후 1968년 25세라는 젊은 나이에 목사 안수를 받아 작센 주의 라스타우(Lastau)와 콜디츠(Colditz) 두 군데서 12년간 목회한 기간이었다. 이곳에서 결혼하여 자녀를 낳아 기르면서 목회자로서 충분한 훈련을 받은 후 그는 1980년에 라이프치히에서 가장 큰, 나아가 동독 지역에서 가장 중심적인 개신교회 중 하나인 니콜라이교회의 담임목사로 청빙을 받게 된다. 당시의 시골 목회 사역에 충분히 만족하고 있었기에 처음에 그는 세 번이나 사양했지만 구약 성경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본토와 친척을 떠나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으로 삼으실 땅으로 가라는 부르심에 응답한 사건과 신약 성경 사도행전 16장에 나타난 마케도니아인의 환상을 성령의 음성으로 인식한 바울이 자신의 계획을 수정하여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선교의 방향을 전환한 것을 기억하며 다시금 기도하던 중 마침내 그 초청을 수락하였다(Führer, 최용준 역, 2012: 156-157).

네 번째로 그의 사역에서 가장 절정의 시기라고 할 수 있는 기간은 바로 종교개혁 이후 니콜라이 교회의 제 122대 담임 목회자로 부임하여 은퇴할 때까지 사역한 기간(1980-2008년)이라고 할 수 있다. 이곳에서 그는 독일 통일의 불씨가 된 월요평화기도회를 인도하기 시작하였고 그것은 나중에 비폭력적이고 평화적인 월요시위로 확산되어 결국 구동독 정권이 무너지고 베를린 장벽이 허물어지는 기적 같은 결과를 낳았다. 이러한 라이프치히에서의 일련의 사역이야말로 그의 생애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시기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는 말년에 그의 삶을 회고하면서 이 모든 일들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였으며 전적으로 그 분의 은혜였다고 자서전에서 고백하고 있다(Führer, 최용준 역, 2015: 12).

마지막 기간으로는 독일이 통일된 이후에도 그는 동독 지역의 실직자들을 돕기 시작하였고 평화 기도회를 계속 주관하다가 2008년 3월 30일 마지막 예배를 인도한 후 모든 공식적인 목회사역에서 은퇴하였다. 하지만 그 후에도 계속해서 다양한 활동을 하였다. 그 중에서도 주목할 일은 그의 아내 모니카와 함께 그들의 사역을 정리한 책인 *Und wir sind dabei gewesen: Die Revolution, die aus der Kirche kam*(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있었다. 교회에서 시작된 혁명)이라는 자서전을 출판한 것이다(2010).³⁾

3) 독일이 통일된 지 이십 년이 지난 2010년에 그는 이 자서전을 통해 당시의 격동적 조짐과 소망을 설명하며 오늘날까지 남겨진 유산이 무엇인지를 잘 요약하고 있다. 이 책은 2015년 8월에 외국어로는 최초로 필자에 의해 한국어로 번역, 출판되었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있었다: 교회에서 일어난 뜨

나아가 그는 평화적인 독일 통일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여러 종류의 상을 받았는데 그 대표적인 것은 2005년에 구소련의 서기장 미하엘 고르바초프(Michael Gorbatschow)와 함께 수상한 아우스부르거 평화상(Augsburger Friedenspreis)이다. 그 후 2013년, 평생의 동역자요 아내였던 모니카 뤼러가 소천하자 약 일 년 후인 2014년 6월 30일 그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친 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이 두 분은 그의 부모님이 묻혀 있는 고향 땅인 랑언로이바-오버하인 교회 묘지에 부모님과 함께 나란히 누워있다. 나아가 그의 신앙적 유산을 이어 받아 그의 장녀 카타리나(Katharina)와 장남인 세바스티안(Sebastian) 또한 목회자가 되어 지금도 계속해서 부친의 사역을 이어가고 있다.

2. 평화의 상징 니콜라이교회

뤼러의 사상 및 사역에서 핵심 단어는 ‘평화’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평화 사상은 그가 사역했던 라이프치히의 니콜라이교회와 결코 분리될 수 없다. 독일 중동부의 상업도시인 라이프치히는 구동독의 다른 도시들과는 다른 위상과 역사를 지니고 있다. 우선 이 도시는 교통의 요지이기에 수난도 많이 겪었다. 30년 전쟁과 나폴레옹의 침입으로 많은 피해를 입었고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에는 연합군의 집중 폭격으로 도시 4분의 1이 파괴되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라이프치히 시민들은 유난히 강한 자긍심을 가졌고 오랜 상업 전통으로 확립한 국제성과 수준 높은 문화의식도 갖추고 있었다. 이미 중세 때부터 상품 박람회를, 1985년부터는 세계 최초 표준박람회(Mustermesse)를 개최하는 전통을 쌓아왔다(blog.naver.com).

이 도시의 중심에 니콜라이 교회가 있는데 라이프치히 도시가 세워질 무렵인 1165년 로마네스크 양식으로 지어진 교회이지만 16세기 초에 고딕양식으로 완성되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사실은 이 니콜라이 교회가 평화의 상징들로 가득하다는 것이다. 이것을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는데 우선 제단 바로 위 천장 가장 높은 곳에는 독일의 화가 아담 외저(Adam F. Oeser)가 그린 평화의 천사가 무지개를 타고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쥐고 있으며 그 두 손 사이에 평화의 비둘기가 있다. 나아가 가장

독특한 것은 교회를 받치고 있는 기둥들이 모두 종려나무 모습으로 장식되어 있는 것인데 이것은 외저로부터 배운 요한 다우테(Johann C. F. Dauthe)라는 건축가가 프랑스의 건축가였던 마르크 안토니 로지어(Marc-Antoine Laugier)의 자문을 받아 1784년부터 1797년까지 실내를 리모델링하면서 새롭게 디자인한 것이다.

나아가 쾰러는 니콜라이교회를 평화가 가득한 ‘축복의 장소(ein Raum des Segens)’라고 말하면서 내부를 ‘천국의 정원’으로 소개하는 동시에 세상과 연결된 통로로 이해하면서 동독 정권을 무너뜨린 기도의 능력을 강조한다.⁴⁾ 1992년 10월에 영국의 엘리

4)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영국의 왕실까지도 놀라게 한 교회당 내부는 내가 처음 보았을 때부터 나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교회당 안은 천국의 정원을 본 떠 만든 것 같이 내부 기둥을 종려나무 모양으로 만들었고 천정에는 나뭇가지가 뻗어 있었다. 교회당 곳곳이 꽃이 피어나는 것을 주제로 하고 있었다. 제단, 제단 창살, 그리고 강독단을 꽃봉오리모양으로 만들었다. 세례석 뚜껑은 튜립 모양으로 만들었고 높은 제단에는 밀알과 포도열매 무늬를 넣었다. 교회당 내부를 전부 밝고 부드러운 색조로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다. 색 유리창은 없었다. 그러므로 빛이 교회당 안으로 온전히 들어올 수 있게 해 놓아 색깔이 빛나게 만들어 놓았다.

그림들은 제단 주변에만 걸어 놓았는데 주로 예수의 생애와 관련한 그림들이다. 이 외에 석고 부조가 4개 있는데 그것은 예수의 예루살렘 입성에서부터 십자가에 처형되기까지의 고통을 그린 것들이다. 바로 그 위 천정에 종려나무 가지를 든 천사와 평화의 비둘기가 있는 하늘 창문이 나왔다. 설교단 뚜껑 위에는 들의 백합화가 있는데 이것은 예수의 산상수훈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었다...

교회당 정문을 들어서면 모든 것이 앞을 향하여 일직선으로 지어져 있다. 제단을 통해 세례석과 은빛 십자가 그리고 부활의 그림이 있는 대제단이 보인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동시에 보이는 것이다!

내가 예배시간에 예배위원들과 제단에 서서 성만찬을 준비할 때면, 열린 정문을 통해 바깥 메세호프파사취(Messehofpassage)까지 볼 수 있다. 교회 건축 설계사가 어느 정도 니콜라이 교회당의 중앙 통로를 연장시킨 것 같다. 나는 이것을 예수님의 말씀과 비교해 보았다: 우리는 바깥세상의 사람들을 주시해야만 한다. 우리는 두터운 교회당 벽 안으로 우리 자신을 숨겨서는 안 되며 세상 사람들의 근심과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자신을 교회당 안에 가두어두지 않으셨고 길거리에, 시장에, 사람들의 집에 그들과 함께 계셨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그들의 삶의 고통의 현장에 함께 있었다...

제단이 있는 곳을 떠나면 부활을 상징하는 촛불 나무를 지나게 된다. ‘폭파된 속박’이라는 이 나무는 40개의 촛불로 장식되어 모세가 시내산에서 계명을 받을 때의 40일과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의 노예생활에서 나와 자유와 약속의 땅을 찾아 나선 광야 40년 생활을 생각나게 해준다. 또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40일 금식하신 것과 부활 후 승천하기까지 40일 그리고 1949년과 1989년 동독의 40년을 생각나게 한다.

우리는 우리의 역사와 성경 구원의 역사를 연결시키고 또 세상의 빛이 되신 예수의 비유와 연관시킨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며 또 우리의 기도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위하여 초를 켤 수 있다. 부활을 상징하는 촛불나무에서 ‘폭파된 속박’을 좀 더 가까이에서 보면 더욱 자

자베스 2세 여왕이 독일을 공식 방문하면서 이 니콜라이교회도 방문했다. 여왕은 독일과 유럽의 변화가 시작된 이곳을 보고 싶어 했기 때문이다(Führer, 최용준 역, 2015: 210).

이 모든 실내의 모습이 모자이크 또는 퍼즐처럼 합쳐지면 독일의 평화 통일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 사실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사실은 이 교회 이름의 의미이다. 원래 성 니콜라우스는 비즈니스맨들의 수호 성자였는데 당시 무역이 왕성하던 라이프치히를 대표하는 교회에 이 성자의 이름이 붙여진 것이다. 그런데 이 니콜라이(Nikolai)라는 말은 그리스어로 니코스(Nikos, 승리자)와 라오스(Laos, 백성)라는 말의 합성어로 ‘승리자는 백성이다(Sieger ist das Volk. Winner is the people)’라는 의미이다. 이는 나중에 나타난 평화 혁명과 관계가 깊은 의미심장한 이름이 아닐 수 없다(Führer, 최용준 역, 2015: 161). 또한 이 니콜라이 교회는 루터 및 바흐와도 인연이 깊다. 왜냐하면 이 교회는 루터의 종교 개혁 이후 라이프치히의 대표적인 개신교회가 되었고 바흐는 인근에 있는 토마스 교회(Thomaskirche)와 함께 이곳에서 수많은 성가곡들을 작곡하고 연주하였다.⁵⁾ 하지만 본 논문의 가장 주된 관심은 이 니콜라이교회가 독일 통일의 도화선이 되었고 나아가 평화 통일을 잉태한 모태가 되었다는 것이다. 즉 뤼러가 주도한 평화기도회가 결국 1989년 10월 18일, 호네커 동독 정권의 40년 철권통치의 막을 내리게 하고 11월 9일에는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린 평화 혁명의 기초가 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평화기도회에 관련하여 그의 사상 및 사역에 대해 좀 더 깊이 살펴보겠다.

3. 평화기도회(Friedensgebete)

뤼러는 그의 자서전 한국어판 서문에서 이 기도회가 나중에 독일의 통일이라는 놀라운 열매를 맺은 것을 회고하면서 이것을 하나의 ‘겨자씨’에 비유했다(Führer, 최용준 역, 2015: 6). 처음에는 그 누구도 이 평화기도회가 그토록 엄청난 위력이 있는지 몰랐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독일 통일의 역사는 복음의 능력을 가장 명확히 증명한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부분도 다섯 가지로 보다 구체적으로 서술하겠다.

세히 알 수 있다. 교회 안에서 그리고 교회로부터 두려움의 속박이 심지어 총체적인 세계관적 독재도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해 준다(Führer, 최용준 역, 2015: 215-223).

5) 그 중에서도 1724년 성 금요일에 바흐는 그가 작곡한 요한의 수난곡을 이 교회에서 최초로 연주하였다.

먼저 주목할 사실은 그가 인도한 기도회가 단지 기도만 하는 모임이 아니라 기도와 함께 보다 구체적인 행동을 실천했다는 점이다. 그가 니콜라이 교회에 부임한 해인 1980년부터 동독 개신교 청년들의 저항운동이 일어나면서 그는 1980년대 초반 매년 가을에 열흘간의 기도회를 개최하였다. 이 기도회는 매우 독특한 방식으로 진행되었는데 먼저 오르간 연주로 개회한 후 성경을 봉독하고 설교하였고 음악과 함께 성찰하는 시간을 가지고, 현실적인 상황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며, 당일 주제에 적절한 찬송을 부른 후, 중보기도 및 주기도를 함께 드리고 축도를 하면 마지막으로 오르간 연주로 마쳤다. 이와 함께 다양한 행동들도 취했는데 가령 평화를 지향하고, 군비증강을 반대하며, 군사적 행위 및 사고에 반대하는 시위와 동독 학교교육에서 사고의 군국화에 반대하는 시위 등을 벌였다. 쾰러에게 있어 ‘기도와 행동’(Beteten und Handeln), ‘교회와 세상’(drinnen und draußen), ‘제단과 거리’(Altar und Straße)는 하나였던 것이다(Führer, 2013: 25). 그가 이러한 어려운 사역들을 감당하자 이 평화기도기간은 동독 정권에 분명한 반대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되었다(Führer, 최용준 역, 2015: 168).

두 번째로 중요한 점은 그가 동독 정권의 온갖 방해와 위협에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더욱 이 기도회를 발전시켜 나간 것이다.⁶⁾ 평화기도기간이 발전되면서 1982년 9월 20일부터는 매주 월요일 저녁 5시에 청년들을 중심으로 평화기도회를 개최하기 시작했다(Führer, 최용준 역, 2015: 192). 물론 동독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사회가 아니었고 따라서 교회는 항상 슈타지(Stasi)⁷⁾라는 비밀경찰의 엄격한 감시 대상이었다. 그러나 다행히도 동독의 교회는 비교적 정권의 통제를 덜 받던 곳이었고 또한 동독 교회를 지켜 내려는 서독 교회의 지원⁸⁾과 유럽 사회의 평화를 위해 기도회를 연다는 명분 그리고 동독 내 자유로운 종교 활동이 보장되어 있다는 동독 정권의 대외 선전 목적 때문에 그런 활동이 가능했다(blog.naver.com). 하지만 쾰러는 동독 정권의 특별한 요주의 대상이었으며 그를 완전히 제거하기 위한 열 단계 계획을 주도면밀하게 세워 놓았음을 그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밝히고 있다(www.youtube.com/watch?v=jASIIH-3409g).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특별히 로마서 12장 11-12절을 인용하면서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6) 여기서 우리는 누가복음 18장 1-8절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비유 및 교훈을 기억할 수 있다.

7) 1950년부터 1990년까지 존재했던 동독의 정보기관으로 국가보안부(Ministerium für Staats sicherheit, 약자 MfS) 또는 슈타지(Stasi)로 불림.

8) 보다 자세한 내용은 후술하겠다.

(Führer, 2013: 23).⁹⁾

세 번째로 강조할 부분은 그의 탁월한 목회 철학이다. 1986년부터 뤼러는 “내게로 오는 사람은 내가 물리치지 않을 것이다”라는 성경의 요한복음 6장 37절을 근거로 ‘니콜라이 교회는 모든 이들에게 열려있다(Nikolaikirche - offen für alle)’는 슬로건을 내걸었다. 그러면서 그곳의 청년들이 심지어 팝 콘서트를 개최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등 동독사회의 소외된 계층과 비그리스도인들 나아가 시위 그룹들에게도 문호를 개방하기 시작하면서 그들을 품기 시작했고 그들의 마음이 교회로 향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¹⁰⁾(Führer, 최용준 역, 2015: 190). 이때부터 니콜라이 교회에서는 진정한 의미의 자유와 복음의 능력이 체험되기 시작했고 바깥세상에서는 병어리와 같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소리를 낼 수 있는 행사의 형식을 빌려 열린 교회와 평화기도회로 장차 있을 평화 혁명의 뿌리가 내리기 시작한 것이다. 뤼러는 앞서 한국어판 서문에서 이미 밝힌 바와 같이 이것을 마태복음 13장 31-32절에 나타난 ‘겨자씨 비유’로 설명한다(Führer, 최용준 역, 2015: 191). 그 결과 니콜라이 교회는 라이프치히 시민들의 영적, 정신적인 중심이 되었고 동독 정권에 대한 저항운동의 본거지가 되어 결국 평화 통일이라는 기적의 열매를 맺은 것이다.

네 번째로 기도와 함께 1987년에 그는 올로프-팔메(Olof Palme)¹¹⁾ 평화순례대행진을 처음으로 주관하여 당국의 온갖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시행하였으며(Führer, 최용준 역, 2015: 253-259) 이듬해인 1988년 2월 19일에는 “동독에서의 삶과 체류(Leben und Bleiben in der DDR)”(Führer, 2013: 26-33)에 관한 강연회도 개최하였는데 당시 동독 정권이 해외여행을 금지하자 이에 불만을 품은 많은 재야인사들이 참여하였고 해외 이주를 하려는 젊은이들과 동독에 체류하려는 두 그룹 간에 진지한 논쟁이 이루어지면서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되어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동독 호네커(Erich Honecker) 정권에 대한 저항의 구체적인 시발점이 되었던 것이다(Führer, 최용준 역, 2015: 261-284).

9) “열심을 내어서 부지런히 일하며,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소망을 품고 즐거워하며, 환난을 당할 때에 참으며, 기도를 꾸준히 하십시오.” 본 논문의 한글 성경은 모두 표준새번역을 사용하였다.

10) 외국인 교회에도 문호를 개방하기 시작하면서 라이프치히 한인교회도 이곳에서 처음 시작하였다.

11) 올로프 팔메는 스웨덴 총리로서 한때 핵무기 경쟁을 반대하면서 동서간의 150킬로미터를 핵무기가 없는 지대를 만들자고 제안하였으나 1986년 2월 28일 암살되었다.

마지막으로 이 평화기도회에서 쾰러는 매우 일관성 있게 평화의 복음을 선포했다. 월요 평화기도회가 계속되면서 그는 예수님의 산상 수훈을 본문으로 평화에 관한 메시지를 중점적으로 전했다. 그의 평화 사상을 단적으로 볼 수 있는 글은 그의 자서전 마지막에 있는 에필로그이다(Führer, 최용준 역, 2015: 523-527)¹²⁾. 그는 “지구에 평화를, 성탄절에만 제한되지 않는 묵상”이라는 제목으로 세상의 논리가 지배하는 평화의 상징인 로마 제국의 평화(*pax romana*) 및 미국의 평화와 대조되는 예수께서 주시는 평화(요한복음 14장 27절)를 강조한다. 그는 본회퍼(Dietrich Bonhoeffer)를 인용하면서 그리스도께서 무기를 제거하시고 전쟁을 중단하셔서 하늘의 평화를 가져오시며(Bonhoeffer, 1934) 본회퍼도 그 길을 직접 걸어갔음을 지적한다. 그리스도께서는 성육신하셔서 하나님의 평화를 이 모순과 잔인한 충돌로 가득한 세상의 중심에 가져 오셨고 이 폭력이 난무하는 세상에서도 우리가 예수의 산상수훈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순간 이 평화는 현실이 됨을 강조한다. 이 진리는 심지어 비기독교인이던 마하트마 간디에게도 영향을 주어 전쟁이나 수많은 인명의 희생 없이 인도를 영국의 식민 통치에서 해방시켰음을 상기시킨다. 또한 미국에서는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이와 동일한 비폭력 정신으로 미국의 폭력적인 인종 차별에 대항하다가 피살당했지만 40년이 지난 후 오바마가 대통령에 당선됨으로 그의 자녀들과 미국 국민들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이 현실화된 것을 경험했음을 또한 지적한다. 나아가 남아공의 넬슨 만델라와 데스몬드 투투 주교 또한 비폭력 정신으로 인종차별정책을 마침내 종식시켰음을 강조한다. 그러므로 라이프치히에서 일어난 월요시위 또한 같은 맥락에서 ‘친구 아니면 적’이라는 이분법적인 틀을 넘어선 그리스도의 평화와 비폭력 정신이 강박관념에 사로잡힌 불안과 두려움 그리고 혀와 주먹으로 하는 폭력을 넘어 다시금 승리했음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평화와 비폭력 정신을 진정으로 실행한다면 이와 동일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고 쾰러는 주장한다.

이와 관련하여 당시 그는 핵무기 배치를 반대하면서 내세운 이사야 2장 4절과 미가 4장 3절, 즉 “주님께서 민족들 사이의 분쟁을 판결하시고, 원근 각처에 있는 열강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실 것이니, 나라마다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나라와 나라가 칼을 들고 서로를 치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군사 훈련도

12) 이 글은 그의 다른 책인 *frech - fromm - frei. Worte, die Geschichte schrieben*. Evangelische Verlagsanstalt; Auflage: 2. Aufl. 2013의 79-82에서도 볼 수 있다.

하지 않을 것이다”는 말씀을 근거로 ‘칼을 보습으로(Schwerter zu Pflugscharen)’라는 슬로건을 내걸었다(Führer, 최용준 역, 2015: 235-244).¹³⁾ 즉 그의 설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인 하나님 나라의 ‘샬롬(평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고 이것은 결국 수많은 군중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으며 심지어 완전무장하고 시위를 진압할 모든 준비가 되어 있던 경찰들과 군인들조차도 무기력하게 만든 원동력이 되었던 것이다.¹⁴⁾

그 결과 이 월요일 오후의 평화기도회로 니콜라이 교회는 1982년부터 초신자들도 몰려들면서 숫자가 급증하게 되었고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인원도 증가하기 시작했다. 가령 1980년 주일 교회 예배 출석인원은 평균 52명이었으나 2006년에는 거의 250명으로 늘어났다. 이렇게 된 데에는 다른 이유들도 있었는데 매년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성찬식을 거행하였고 일 년에 4번은 가족예배로 드렸으며 그 때마다 세례식을 거행했기 때문이다. 청년들은 청년회를 통해 교회와의 연결을 찾았다. 그들 모두가 신앙 때문에 교회에 온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니콜라이교회에서는 바깥세상에서 말할 수 없는 자신들의 문제를 다시 찾을 수 있었고 거기에 대해 말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나아가 1988년부터는 평화기도회를 통해 교회와 처음으로 접촉한 사람들이 주일 예배에도 오는 것도 볼 수 있었다(Führer, 최용준 역, 2015: 197).

이 평화기도회가 동독 전역에 알려지면서 드레스덴 등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주기 시작하자 1989년의 처음 몇 달 동안 동독 정권은 이 기도회를 점점 더 억압하면서 중단시키려 했다. 교회로 통하는 모든 도로를 차단하였고 교회 주변으로 몰려드는 수상한 사람들을 무작위로 체포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결국 이것은 모두 실패로 끝났고 오히려 더 큰 반발을 불러 일으켰으며 월요 기도회에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기 시작하여 마침내 철웅성 같은 동독 정권과 베를린 장벽을 여리고성 무너뜨리듯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만든 월요시위의 시발점이 되었던 것이다.

13) 이 슬로건은 뤼러에게 너무나 중요하여 은퇴 후에도 그의 서재 벽 중앙에 말씀과 그림으로 걸려 있었음을 필자는 직접 목격하였다.

14) 평화에 관한 보다 많은 그의 메시지는 앞서 언급한 뤼러의 다른 책인 *frech - fromm - frei. Worte, die Geschichte schreiben*에 수록되어 있다.

4. 월요시위(Montagsdemonstration)

튀러는 평화기도회가 결정적인 시간에 월요시위로 이어지는데 가장 중요한 가교역할을 했다.¹⁵⁾ 월요시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1989년 9월 4일부터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날 이후부터 ‘평화기도회’는 양상이 달라졌다. 구소련으로부터 시작된 변화의 물결이 동유럽에서 거세게 일어나던 것과 때를 같이하여 동독의 라이프치히는 새로운 정치운동의 시발점이 된 것이다. 이 날은 기도회가 끝났어도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았고, 오히려 교회 앞 광장으로 모여들었다. 시민들도 이에 합세하기 시작했다. 슈타지의 강력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거리로 행진하기 시작했다. 약 1천 명의 시민들이 “슈타지는 물러가라(Stasi raus)!” “여행의 자유를 달라(Reisefreiheit)”라는 구호를 외쳤다. 그러자 슈타지의 무력진압이 시작되었고 70명의 재야인사들이 체포되었다. 튀러는 이러한 상황의 악화에 대해 매우 분노하면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았고 계속해서 평화의 메시지를 선포했다.

하지만 시위는 그치지 않았고 다음 주 월요일인 9월 11일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 들었다. 드디어 동독 사회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월요시위(Montagsdemonstration)’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다(Führer, 최용준 역, 2015: 338). 슈타지는 더욱 이에 맞서 체포와 강제진압으로 9월 11일과 18일의 월요시위에 대응했다. 하지만 9월 25일 평화기도회가 끝난 후 시작된 월요시위에는 8천명이 합류하면서 저항 운동은 더 거세져 갔다. 일주일 후인 10월 2일의 월요시위에는 2만 명이 참가하면서, 슈타지와 시위대 사이에 유혈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물론 이 부분을 본다면 월요시위와 처음부터 완벽한 평화적 시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이후 가장 결정적인 날인 1989년 10월 9일부터 시작된 본격적인 월요시위는 시위의 양상이 평화적으로 달라지기 시작했다. 튀러는 평화 혁명의 도화선이 된 월요시위의 준비 상황을 회상하며 모든 이들에게 열려 있던 이 교회가 많은 압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구동독의 모든 사람들을 연합시켰다고 증언한다.¹⁶⁾

15) 튀러와 함께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으로는 크리스토프 본네베르거(Christoph Wonneberger) 목사를 언급할 가치가 있다. 그는 드레스덴에서 목회하다가 라이프치히의 루카스교회로 부임하여 평화기도회 및 월요시위를 주도하였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Mayer, Thomas (2014). *Der nicht aufgibt. Christoph Wonneberger - eine Biographie* Evangelische Verlagsanstalt. 『포기 않는 자』 (우리민족교류협회, 2015) 참조.

동독 정권은 1989년 10월 7일 건국 40주년 행사를 성대하게 거행했다. 그러면서 반동적인 데모에 대해서는 얼마 전 천안문 사태를 진압한 중국식 해법을 적용하여 무력진압도 불사하겠다고 동독 국민들을 공공연히 위협했다. 그리고 그것은 구체적으로 실행되어 동독의 슈타지는 계속해서 뤼리에게 압력과 위협을 가하기 시작했으나 그가 타협하지 않고 사태가 악화되자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기 한 달 전인 1989년 10월 9일, 마침내 8천 명의 동독 군인들과 경찰병력이 니콜라이 교회 앞에 집결하였다. 그 날 아침 익명의 전화가 걸려 오면서 평화기도회를 계속하면 교회를 불 질러 버리겠다고 협박하는 사람도 있었다(Führer, 최용준 역, 2015: 356).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 저녁 평화기도회는 다시 열렸다. 놀라운 사실은 그날 오후 2시부터 동독 비밀경찰요원들과 당원들 600여명이 교회로 들어와 기도회에 참여하게 된 것이다. 이들은 기도회를 감시, 통제하러 왔으나 뤼리는 당황하지 않고 그들에게도 니콜라이교회는 문이 열려 있음을 상기시키며 환영했고 결국 그들은 처음으로 뤼리를 통해 복음을 듣게 되었으며¹⁷⁾ 결

16) “모든 이들에게 열려 있는 니콜라이 교회”는 1989년 가을에 실재가 되었고 우리 모두를 놀라게 했다. 결국, 이 교회는 구동독의 모든 사람들을 연합시켰다: 동독을 떠나려 했던 사람들, 단지 호기심을 가졌던 사람들, 정권을 비판하던 사람들과 동독 비밀경찰(Stasi) 요원들, 교회 임직자들, 독일통일사회당(SED: Sozialistische Einheitspartei Deutschlands)원들, 그리스도인들과 비그리스도인들 모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넓은 품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 1949년에서 1989년까지의 정치적 현실을 고려할 때 이 사건은 모든 상상을 거부하는 초유의 실재가 되었다. 라이프치히에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정확히 450년이 지난 1989년 기적이 다시 일어난 것이다.

1989년 5월 8일, 교회로 들어오는 모든 도로들은 경찰에 의해 차단되었다. 그 후 검문검색이 강화되었고 평화 기도회 기간에는 아예 출입이 금지되었다. 국가 기관들은 더욱 이 평화기도회를 취소하도록 압력을 가했고 번두리 지역으로 옮기려 했다. 월요일마다 많은 사람들이 평화기도회에 참여하려다 체포되었고 “일시적으로 구금”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방문객들이 교회로 몰려들었고 최대수용인원인 2000명의 좌석도 부족하게 되었다. 그 후 1989년 10월 9일의 결정적인 기적이 일어난 것이다(www.nikolaikirche-leipzig.de). 그래서 뤼리는 이 날을 ‘결단의 날(Der Tag der Entscheidung)’이라고 말한다(Führer, 최용준 역, 2015: 11).

17) 그는 “돈이 있는 자는 행복하다.”고 말하지 않고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고 말했다(마태복음 5장 3절). 그는 “적을 타도하라”고 말하지 않고 “... 네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말했다(마태복음 5장 43-48절). 그는 “모든 것이 옛날과 같이 변하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고 “이와 같이 풀썩들이 첫째가 되고, 첫썩들이 둘째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마태복음 20장 16절). 그는 “정말 조심해라.”라고 말하지 않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누가복음 9장 24절). 그는 “너희는 크림”이라고 말하지 않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했다(마태복음 5장 13-16절). (Führer, 최용준 역, 2015: 361-362)

국 이 평화의 복음은 그들의 마음과 행동까지도 사로잡게 되었던 것이다.

그 이후 평화기도회는 놀라울 정도로 침착하면서도 집중하는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기도회가 끝나기 직전인 푸러는 나중에 “6인의 호소”로 역사에 기록된 호소문을 낭독했고 동시에 마주르(Kurt Masur) 교수가 라이프치히 라디오 방송에서 같은 호소문을 낭독했다.¹⁸⁾ 그 후 게반트하우스(Gewandhaus) 수석지휘자와 희극인 베르트 루프 랑에(Bernd-Lutz Lange)가 비폭력을 선포함으로써, 교회, 미술, 음악과 복음이 하나로 연합되었고 평화기도회는 주교의 축도로 끝나게 되었다. 그는 방문객들 및 이 날 참석한 약 600여명의 당원들에게도, 선동에 휩쓸리지 말며, 폭력에 끼어들지 말고 또 폭력적으로 대응하지 말아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교회 문이 열렸고 2천여 명의 사람들이 교회당을 나섰을 때 놀랍고 감동적인 광경이 이들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교회 마당과 주변 거리에는 만여 명의 사람들이 손에 초를 들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푸러는 “우리는 당신들과 함께 하기 원합니다”라고 소리쳤고 문 앞에 있던 사람들에게 교회 안의 사람들이 나갈 수 있도록 자리를 비켜달라고 부탁했을 때 사람들은 기꺼이 자리를 만들어 주었다. 그들은 한 손에 비폭력을 의미하는 초를 들고 다른 한 손은 촛불이 꺼지지 않도록 바람을 막아야 했기 때문에 돌이나 몽둥이를 들 수 없었던 것이다(Führer, 최용준 역, 2015: 363-364).

시위 행렬은 서서히 시내를 관통하여 행진하기 시작했고 마침내 기적이 일어났다. 폭력을 거부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대중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평화로운 “힘”이 그 능력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수많은 인파 속에는 당연히 폭동을 계획한 사람이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이 도발하려고 하면 사방에서 사람들이 초를 들고

18) 원문은 다음과 같다: “라이프치히 시민이었던 마주르 교수, 꺾머만 신학박사, 희극인 베르트-루프 랑에(Bernd-Lutz Lange), 독일 사회주의 통일당 지역대표 서기장이었던 쿠르트 마이어(Kurt Meyer), 요혼 폼메르트(Jochen Pommert), 롤란드 뵘펠(Roland Wötzel) 등이 다음의 호소문으로 라이프치히 시민들에게 호소합니다. 우리 모두가 공동으로 느끼고 있는 염려와 책임의식이 오늘 우리를 모이게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시에서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으며 그 해결책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나라 사회주의의 미래에 대해 자유로이 의견을 교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앞서 언급된 사람들은 진력을 다해 자신들의 권위를 다하여 이 대화가 라이프치히 지역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부와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할 것을 모든 시민들에게 약속합니다. 평화로운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 신중하게 행동해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쿠르트 마주르가 낭독하였습니다.” NEUES FORUM LEIPZIG Jetzt oder nie (라이프치히 신 포럼, 지금 아니면 영원히 안 됨). München, 1990.

“비폭력”이라는 구호와 함께 그들을 막아섰던 것이다. 몇몇 시위대는 “비폭력”이라고 쓴 띠를 두르기도 했으며 심지어 시위하던 사람들은 근처에 서 있던 제복을 입은 사람들, 즉 군인들, 전투부대, 경찰관들까지도 대화로 이끌어 들였다. 이 부분은 나중에 에리히 루스트(Erich Loest)가 니콜라이 교회 이야기를 소설로 쓴 작품(Loest, 1997)을 근거로 프랑크 바이어(Frank Beyer)가 제작한 ‘니콜라이교회(Nikolaikirche)’라는 영화에서도 아주 잘 묘사되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의하면 당시 동독 비밀경찰의 총책임자였던 호르스트 진더만(Horst Sindermann)은 1989년 10월 9일을 회상하며 “우리는 모든 것을 계획했다. 그리고 모든 상황에 대해 준비되어 있었다. 단지 촛불과 기도에 대해서만 제외하고 말이다”라고 말했다고 한다(Führer, 최용준 역, 2015: 365).

시위 행렬이 그림마이쎬거리(Grimmaischen Strasse)에서 출발하여 오페라하우스와 중앙역을 지나 비밀경찰이 들어서 있는 구역을 향하자 슈타지 비밀경찰은 자기 사람들을 조심스럽게 퇴각시켰으며 건물 안에는 불이 모두 꺼졌다고 한다. 이 날 저녁에는 승리자도, 패배자도 없었다. 어느 누구도 어떤 사람에 대해 승리를 자랑하지 않았고 아무도 체면을 잃지 않았다. 창문 하나도 깨어지지 않았으며 목숨을 잃은 사람도 없었다. 이와 같이 비폭력은 교회 안에서만 머무르지 않았고 거리와 광장에서 실천되었던 것이다. 군중들 중 일부는 투쟁적이고 무신론적인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의식적으로 폭력에 저항하겠다고 결정했다. 이는 그들의 세계관이 근본적으로 변화되었음을 입증한다. 비폭력의 전통이 전혀 없고 오히려 두 번이나 세계대전을 일으켜 무지막지한 폭력을 유대인들에게 행사했던 게르만 민족에게서 독일 역사상 최초인 무혈 평화 혁명이 기적적으로 일어난 것이다(Führer, 최용준 역, 2015: 366-367).

여기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뤼러가 평화기도회를 인도한 것뿐만 아니라 월요시위도 주도했으며 그와 함께 한 사람들과 지혜롭게 동역할 줄 아는 리더였다는 것이다. 그 결과 일주일 후인 10월 16일 월요시위는 동독 전역으로 확산되었고 라이프치히에는 12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시위에 참가했으며 11월 6일에는 무려 40만 명으로 늘어났다. 당시 라이프치히 인구가 55만 명이었음을 감안한다면 매우 놀랄만한 수치가 아닐 수 없다. 이처럼 민주적인 변화를 촉구하며 동독 전체로 퍼진 이 혁명은 끝까지 평화롭게 진행되어 “우리가 주인이다(Wir sind das Volk). 우리는 하나의 국민이다(Wir sind ein Volk)”를 외치며 통일된 독일 지도를 들고 행진하던 군중들은 마침내 피한방울 흘리지 않고 독일의 통일을 이루어낸 것이다.

이렇게 사태가 견잡을 수 없이 확대되자 10월 18일 동독의 최고 권력자였던 호네커는 수많은 군중들의 시위를 더 이상 통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는지 권좌에서 물러나고 말았다. 그 후, 그가 인민 교육부장관이었던 그의 부인 마르고트와 함께 도피, 망명하면서 은신처로 선택한 곳은 동독의 큰 형격이었던 소련의 영내도 아니었고 동독 군대의 병영도 아니었으며 독일 사회주의 통일당이나 자유 독일 노총(FDGB: Freie Deutsche Gewerkschaftsbund)의 휴양지도 아닌, 역설적으로, 로베탈(Lobetel) 지역의 우베 홀머(Uwe Holmer)라고 하는 개신교 목회자 가정이었다(Führer, 최용준 역, 2015: 234). 이곳에서 그는 1990년 1월 30일부터 4월 3일까지 부인과 함께 숨어 있다가 동베를린 소재 소련 야전병원으로 도피한 후 구 소련으로 망명했던 것이다. 이렇게 호네커 서기장이 정권에서 물러나자 1989년 11월 9일 베를린 장벽은 너무나 쉽게 무너졌고 서독의 헬무트 콜(Helmut Kohl) 총리의 리더십 하에 이듬해인 1990년 10월 3일 독일은 법적으로 통일되었다.¹⁹⁾

5. 교회에서 시작된 평화 혁명

이렇게 전개된 월요시위가 비폭력 및 평화 혁명으로 이어지면서 단기간에 동독 정권을 붕괴시킨 사건을 두고 뛰리는 두 성경 구절을 인용하여 설명했다. 즉, “힘으로도 되지 않고, 권력으로도 되지 않으며,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될 것이다.” (스가랴 4장 6절) 그리고 “주님은 그 팔로 권능을 행하시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흠으셨으니, 제왕들을 왕좌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사람을 높이셨습니다.” (누가복음 1장 51-52절) 이 두 말씀의 능력을 그는 철저히 경험했다고 강조한다. 교회에 수천 명이 있었고 시내 중심을 에워싼 수만 명이 거리에 있었지만 가게의 유리창 하나도 깨어지지 않았다. 이것이 바로 비폭력과 평화의 믿기 어려운 힘을 경험한 순간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뛰리는 그의 자서전 서문에서 이 사건을 회고하면서 이러한 기적은 자신의 능력에 의한 결코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겸손히 고백하는 동시에 이 사건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며 미래를 향한 밑거름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²⁰⁾

19) 1989년 10월 9일 이날의 무혈 평화혁명을 기념하기 위해 니콜라이 교회 광장 곁에 세워놓은 대리석으로 만든 종려나무 기둥 조각은 어떤 극한적인 경우에도 비폭력적인 저항과 평화는 가능하며 승리한다는 사실을 웅변적으로 상기시켜주고 있다.

위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독일의 통일은 물론 다른 외부적인 요소들도 많이 있지만 한 목회자의 철저한 헌신과 그를 통해 역사한 하나님의 말씀, 즉 평화의 복음에 대해 니콜라이교회를 중심으로 모인 시민들의 온전한 응답의 결과 역사적으로 전무후무한 평화적 무혈 혁명이라는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 나아가 이 사건은 동구권에 개혁의 바람을 일으켜 민주화 운동의 시발점이 되었고 소련 역시 붕괴되고 자치 공화국들이 독립하면서 전 세계의 역사를 바꾸어 놓는 놀라운 결과를 낳게 되었던 것이다.

6. 동서독 교회의 특별한 결속

여기서 또한 추가적으로 언급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1989년에 일어난 이 극적이고 역사적인 통독의 배후에는 분단의 기간에도 서독 교회 성도들이 동독 교회를 잊지 않고 꾸준히 그리고 신실하게 헌신하여 회생적으로 섬겼다는 것이다. 라이프치히 니콜라이 교회의 평화기도회가 동독 교회 및 국민 전체를 깨우는 역할을 감당한 반면, 서독 교회는 매년 동독 교회에 물질 및 헌금으로 섬기고 도와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자매임을 실제적으로 보여 주었다. 결국 베를린 철의 장벽에도 불구하고 동서독

20) 원문은 다음과 같다: “니콜라이 교회의 목회자로서 이 일에 직접 관여했던 나는, 이 평화혁명이 교회에서 수년간 설교한 산상보훈에 있는 예수님의 비폭력 정신에서 나온 것임을 단언한다. 교회에서부터 비롯된 비폭력적 행동 강령이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이것이 바로 거리에서 행동으로 옮겨진 것이다. “비폭력!”이라는 강력한 외침이 그때까지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또 국민을 억압하던 시스템을 쓸어버린 것이다.

독일인들은 그 때까지 한 번도 혁명에서 성공해 본 적이 없었다. 이 평화 혁명은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거둔 첫 성공이었다. 독일 정치사에서 유일하게 성공한 사례이다. 그야말로 성경적인 메시지가 낳은 기적인 것이다!

금세기 마지막에, 전례 없는 1, 2차 세계 대전을 통해 국민들이 무자비하게 파멸된 상황에 이어, 예수님에 의한 귀한 열매가 나타난 것이다!

나는 이것을 오직 은혜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우리 교회와 함께 참여한 모든 교회들을 향하신 은혜였다. 우리 도시와 다른 도시들 그리고 마을을 향한 은혜였다. 우리 민족 전체를 향한 그 분의 은혜였다...

이것은 결코 성공 신화가 아니라 고향, 가족, 교회 그리고 힘들었지만 아름다운 길로 나를 인도하는 데 불가분리적으로 함께 했던 모든 사람들의 신앙 이야기이다. 내가 기적들을 통해 더욱 성숙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성경에 감사하고 싶다. 이렇게 나는 가능한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이 가능함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실제로 평화 혁명의 기적을 경험했다.” (Führer, 최용준 역, 2015: 11-14)

교회 간에는 하나 된 결속감이 살아 있었으며 이 하나 됨이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여러 교성도 하루아침에 무너뜨린 것이다. 이런 면에서 쾨러가 섬겼던 니콜라이 교회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에 의하면 동독 당시에 있던 8개의 개신교 주회들은 원래 서독에 있던 독일 개신교회(EKD: Evangelischen Kirche in Deutschland) 소속이었다. 그 후 동독 교회는 동독 정부의 압력으로 1969년에 ‘동독 개신교회 연맹(BEK: Bund der Evangelischen Kirchen der DDR)’이라는 단체를 만들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독 교회는 서독 교회와 하나의 공동 교회를 추구하였으며 그들도 독일 개신교회에 소속되었다는 것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즉 동독 교회는 동독 정권에 의해 구석으로 내몰리지도 않았으며 매수되지도 않았던 것이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동독 교회가 독일 개신교회 소속임을 고수함으로써 여러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였는데 이것이 동독 정부에게는 계속해서 눈의 가시 같은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 동독 정부에게는 새롭게 구성된 동독 개신교회 연맹이라는 단체와 공동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협상할 수 있는 이점이 있기도 했다. 그런 와중에도 동독교회는 여전히 서독교회들과 자매결연 형태로 깊은 유대 및 결속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동서독 교회들 간의 규정 같은 것은 없었으며 개별 주교회들 간 파트너십은 이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았고 쾨러 또한 1969년 연맹 결성에 대해 동독 교회들이 오히려 활동 범위를 넓힐 수 있는 가능성의 문이 열린 것으로 평가했다(Führer, 최용준 역, 2015: 231-232). 쾨러가 이러한 결속관계에서 어떤 구체적인 역할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 또한 이러한 유대관계가 결국 동독 정권에 대해 동독교회가 ‘사회주의를 위한 교회도 아니며 사회주의를 반대하는 교회도 아니라 사회주의 내에서의 교회’로 순응하는 동시에 지속적으로 저항하여 동독의 종말에 결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큰 힘이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Führer, 최용준 역, 2015: 234).

이 부분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주도홍의 연구가 가장 주목할 만한데(주도홍, 1999, 2006) ‘동독 개신교회 연맹’이 출범한 후 동서독 교회들은 교회법 4조 4항에서 “동독과 서독의 모든 개신교회들이 각자의 기관을 통하여 동반자적 자유를 가지고 함께 만나기 위하여 “특별한 유대관계(die besondere Gemeinschaft)”가 있음을 명시하였다(주도홍, 1999: 77; 2006:21). 이 관계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동서독 교회는 이 “특별한 유대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시키기 위하여 양편의 멤버들로 구성되는 “자

문단(Beratergruppe)”과 “협의단(Konsultationsgruppe)”을 구성하였는데, 전자는 교회적인 문제를 위해서, 후자는 사회참여적인 세계 평화와 화해의 문제 등을 의논하기 위해 구성되었다. 이러한 모임은 두 교회의 공식적인 모임을 위한 사전에 모이는 사적 모임의 성격도 강하였는데, 어떤 때는 서로의 일상적인 안부와 소식을 전하기도 하였고, 분단의 민족의 아쉬운 형제애적 사랑을 나누는 현상이 되기도 하였다. 물론 서로간의 사업계획을 의논하고 필요할 때는 은밀한 도움을 요청하는 통로이기도 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모임 자체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임은 독일 통일이 이루어지는 순간까지 계속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모임은 결국 서로를 이해하며 사랑하는 관계로 이끌게 되었는데, 다름 아닌 서독교회의 동독 교회를 돕는 프로그램으로 연결된 것이다(주도홍, 1999: 78-79; 2006: 21-22).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서독교회는 어떻게 동독교회를 지원했는지 주도홍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주도홍, 1999: 80-86). 첫째로 서독교회는 언제나 명목 있는 재정 지원을 했다. 분단 당시 동독교회는 신앙적으로뿐만 아니라, 물질적으로도 극심한 어려움에 처해 있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동독정권의 교회가 스스로 자멸되도록 하는 여러 가지 종류의 핍박정책 때문이었다. 그 중에서도 물질을 끊는 정책을 구사하게 되었는데, 가령 독일교회의 유일한 재정 수입원이었던 교회세 제도를 법으로 금지하는 동시에, 신도들은 일반 동독시민들이 누리는 보험 및 연금제도 등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철저한 불이익을 당했다. 심지어 신앙 활동을 범죄활동으로 규정하면서 감옥에 가두는 등의 박해 전략을 실시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동독교회를 서독교회는 순수한 사랑에 의해 물질적으로 도왔는데, 언제나 명목 있는 도움으로 도움을 받는 상대방의 자존심을 지켜주었고, 그러면서도 더욱 놀라운 것은 단 한 번도 도와준 돈의 사용처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돈의 사용 용도를 묻게 되면 이러한 재정지원을 계속할 수 없음을 알았기에 그들은 어려운 형편에 처한 형제를 그저 그리스도의 성령의 사랑으로 도왔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둘째로 이러한 서독교회의 재정지원은 결코 그 규모가 작지 않았으며, 또한 단회적이거나 과시적이 아닌, 지속적이고 인격적이었다. 매년 동독교회를 위한 물질적 지원이 한화로 약 300억 원에서 400억 원에 달하였으며 이러한 도움을 주면서도 매우 지혜롭게 직접 금전을 지불하는 동시에 그들이 필요로 하는 물자들을 공급하기도 했다. 이 금액에서 절반 정도는 동독 교회의 재정으로 충당되었고, 20% 정도는 교회의 사회

봉사 활동에 사용되었으며, 남은 13% 정도는 청소년 사역, 교육기관 또는 휴양 시설을 유지하는데 사용되었다(Heidingsfeld, 1993: 98-100).

또한 이를 위해서는 서독정부의 적극적 도움 및 동독정권의 묵인 내지는 협조도 있어야만 했다. 실제로 서독 정부 또한 이 교회의 재정 지원 프로그램을 배후에서 은밀하게 지원했다. 이러한 프로그램에는 동독교회를 돕는 형태와 정치범 등의 석방을 위한 형태가 있었는데, 전자를 위해서는 반액을, 후자를 위해서는 전액을 담당하였다. 그러면서도 서독 정부는 결코 생색을 내거나 드러내지 않았다는 점은 매우 주목할 만하다. 이는 단지 서독교회의 프로그램일 뿐이었지만 이를 위해 서독 정부는 법적으로 재정적으로 도움을 주었던 것이다. 이러한 서독교회의 재정적 지원은 결국 동독의 교회 뿐만 아니라, 동독을 돕는 결과를 가져왔다. 즉 외화 획득뿐 아니라, 신앙의 박해 가운데 처한 동독교회를 활성화시켰던 것이다(주도홍, 1999: 83-85).

물론 이러한 재정지원 정책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았다. 그 이유는 동독의 공산정권을 더욱 견고히 유지시키는 결과가 된다는 이유에서였다.²¹⁾ 그러나 실제로 이러한 서독교회의 재정적 지원은 결국 동독교회의 지속적인 복음전파를 가능케 함으로써 동독인들의 삶에 중요한 원리를 제공하여 유물론적 사회주의를 대적할 수 있는 토양을 형성시켜 결국 동독 정권의 붕괴를 재촉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했다는 점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1990년 독일이 법적으로 통일되었을 때 이러한 동서독의 “특별한 유대 관계”가 결국 정치적으로 분단된 동서독을 견고히 묶어주는 연결고리의 역할을 감당하였음을 독일교회는 로꿈(Loccum) 선언을 통해 재차 확인하였다(Kremser, 1993: 85-86).

이러한 재정적 지원의 다른 축을 형성하고 있던 그룹은 다름 아닌 “디아코니(Diakonie) 재단”의 활동이었는데 이들이 갖고 있었던 철학은 다름 아닌 “섬김의 신학”이었다고 주도홍은 강조한다(주도홍, 1999: 86-91). 이들의 활동을 보면 앞서 언급한 동서독 교회의 “특별한 유대관계”는 이미 1958년부터 ‘독일교회연합’의 주도하에 시작되었다는 사실도 알 수 있다. 즉, 독일인의 삶 가운데서 ‘보이는 사랑’의 실천은 이미 생활화되어 ‘독일교회연합’의 주도하에 동독에 대해 물자 지원을 계속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지원 프로그램은 통일된 이후인 1991년에 비로소 종료되었다. 디아코니의 활동은 병원, 양로원, 고아원 등을 위시하여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그 어떠한 기관이

21) 남한에도 이러한 이유로 북한 교회를 돕는 것을 반대하는 분들이 적지 않다.

라도 그리스도의 따뜻한 사랑으로 찾아가 그들의 이웃이 되었다. 물론 여기에는 막대한 물질적 지원이 뒤따라야만 했다.²²⁾ 이러한 디아코니의 활동은 결국 동서독의 인간 관계를 언제나 견고히 묶어주는 “사랑의 띠”였던 것이다. 이러한 동서독 교회의 특별한 관계에 대해 “디아코니 재단”의 회장이었던 노이캄(Karl H. Neukamm)은 다음과 같이 증언한다. “동서독 교회의 두 디아코니 재단들이 했던 것처럼, 세상의 그 어떤 다른 기관들도 서로 그렇게 가깝게 하나 되어 일을 추진했던 예는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독일의 통일이 영적인 면에서뿐만 아니라, 기관적으로도 속히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Diakonie-Jahrbuch 90:115).

1978년 3월 동독정부와 동독교회가 대화를 시작한지 12년이 지난 후에 동독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이로써 동독교회연맹(BEK)은 더 이상 존재의미가 없어졌고 독일개신교회(EKD)연합이 다시 부활되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동서독 교회는 비록 분단의 기간에도 영적 일치감을 잃지 않았고 계속해서 기도와 물질로 교제한 것이 결정적인 순간에 동독 정권을 무너뜨리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III. 결론

지금까지 우리는 독일의 평화 통일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뤼러의 생애와 사상 및 사역을 중심으로 라이프치히 니콜라이 교회에서 일어난 월요평화기도회가 어떻게 독일의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을 가져왔는지를 보았다. 먼저 그의 생애에 있어 주목할 점들 다섯 가지를 살펴 본 후 니콜라이교회가 어떤 점에서 평화의 상징인지 세 가지로 설명했다. 그 후에 이 교회에서 뤼러가 주도한 평화기도회에 관해 다섯 가지 중요한 부분들을 그의 평화 사상과 함께 고찰하였고 이것이 어떻게 월요시위로 연결, 전개되었는지를 서술하였다. 그 후 교회에서 시작된 이 기도 운동이 어떻게 마침내 평화적인 통일로 열매 맺게 되었는지를 살펴보고 나아가 통일 이전에 이미 존재했던 동서독 교회의 유대관계를 언급하면서 독일의 통일에 동서독의 개신교회가 어떻게 결정적인 역할을 했음을 진술하였다. 결국 니콜라이 교회는 뤼러와 성도들이 시작한 평화기도회

22) 가령 1972년에는 무려 1억 2천만 마르크였다(주도홍, 1999: 87).

를 통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통일의 문을 열었고 배후에는 서독교회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평화 기도회를 보며 분단시대를 살고 있는 한국사회 및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무엇보다 먼저 한국 교회는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이다. 북한 동포들을 위해, 평화 통일을 위해 낙심하지 말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기도해야 할 것이다. 현재 한국의 사랑의 교회에서는 매주 목요일 ‘쥬빌리 구국 통일기도회’가 그리고 명성교회에서는 니콜라이 교회를 본받아 매주 월요일마다 ‘평화통일기도회’가 실시되고 있다. 이는 매우 고무적이며 이를 다른 교회에도 확장할 필요가 있겠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뛰려는 기도와 함께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 복음이 말하는 평화와 비폭력 그리고 원수 사랑을 보여 주었다. 따라서 우리 한국 교회도 모든 이들에게 열린 공간이 되어 기도와 더불어 더욱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이슈에 대해 성경적 관점을 제시하며 다양한 사랑과 봉사의 실천을 통해 남북 간에 평화적인 분위기가 정착되고 북한이 보다 열린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남한의 정부 또한 서독 정부로부터 배울 교훈이 있다. 지금까지 남한 정부는 남한의 교회가 하는 모든 대북 사역에 대해 감시, 통제 나아가 간섭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교회가 하는 일들을 막기 보다는 뒤에서 조용히 후원하며 생색을 내려고 하지 않았고 권위적인 자세를 취하지 않으면서 교회와 지혜롭게 협력하며 상호 존중하여 마침내 통일의 대업을 이루어낸 서독 정부의 역할을 보다 깊이 기억하면서 한반도의 통일 정책에 적용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남한의 교회도 북한 교회의 재건 및 통일에 대해 지금까지는 다소 물질적인 접근이 지배적이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가령, 통일이 되면 북한에 예배당을 지어야 한다는 명목으로 헌금을 모으는 일에 제한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하지만 이보다도 동독 교회의 현실적 필요에 민감하면서 보다 실질적이고도 일관성 있게 그리고 진정한 사랑과 겸손한 봉사의 자세로 섬겼던 서독 교회의 모습을 남한 교회는 본받아야 할 것이다. 이와 동시에 이미 남한에 있는 새터민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정부와 협력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신앙생활에 필요한 모든 영적, 물질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 그들이 통일의 마중물이 되고 통일 이후 북한을 재복음화할 수 있는 제자로 양육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적지 않은 남한 국민들은 통일 비용에 대해 언급하면서 현재 상태(status

quo)를 유지하는 것을 더 선호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하지만 사실상 통일 비용보다 현재 분단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더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논리는 설득력이 약하다. 나아가 천만 이산가족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 이들의 상시 방문 및 연락을 통해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는 것은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졌던 역사적 과업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또한 비록 독일과 한국의 상황은 매우 다르지만 원칙적으로 독일에서 일어난 기적이 한반도에서 일어나지 말라는 법은 없다. 따라서 한국 교회도 한국 사회에 대해 그리고 한반도의 통일을 위한 책임 의식과 사명을 새롭게 고취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역사적 책임의식을 바탕으로 한국 교회는 그동안의 분열에 대해 철저히 회개하면서 연합과 일치 운동을 다시 일으켜야 한다. 왜냐하면 한반도의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한국 교회의 모습은 아직 너무 분열된 부끄러운 모습이기 때문이다. 국내 및 해외한인 디아스포라 신앙인들이 이 부분을 깊이 반성하면서 개교회적으로 그리고 교단적으로 화해와 하나 됨을 회복하면서 남북한의 통일을 위해 기도할 때 더 많은 시민들이 공감하며 동참할 것이며 남북한의 허리를 가로 지르는 휴전선도 베를린 장벽처럼 무너져 평화적으로 남북이 온전히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²³⁾

그 누구도 동서독이 이렇게 통일될 것으로 예측한 사람은 없었다. 그러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성경적인 방법, 즉 평화와 비폭력으로 헌신했을 때 독일에 이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신 것이다. 그 이름의 의미처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며 영적 리더(Führer)로서 끝까지 낙망하지 않고 온전히 기도와 평화에 헌신함으로 철의 장막으로 무너뜨린 뤼러를 보면서 한반도에도 이러한 영적 리더를 허락해 주시길 간구해야 한다. 나아가 국내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개인적 혹은 여러 단체를 통해 직간접으로 북한 동포들과 지하 교회 성도들을 섬기는 것은 분명 고무적인 일이다. 결국 복음에 충실한 비폭력과 평화는 칼을 쳐서 보습으로 만드는 능력이 있음을 기억하고 지혜롭게 적용할 때 한반도에도 같은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23) 이 부분에 대해 보다 자세한 논의는 최용준, 「하나 됨의 비전」(2006, 서울: IVP) 참조.

참고문헌

- 김기련 (2001). “독일 통일에 있어서 교회의 역할: 한반도의 상황과 비교해서.” 『역사신학 논총』. 이레서원. 한국복음주의 역사신학회. 56-72.
- 김영한 (1994). “독일 통일과 교회의 역할.” 『민족 통일과 한국 기독교』. 서울: IVP.
- 박명철 (1997). “독일 통일에 비추어 본 우리의 통일 현실 - 독일 통일에 있어서 교회의 역할.” 『기독교 사상』. 6월호 40-53.
- 신용호 (1998). 『독일통일에 따른 법적 문제: 분단에서 통일까지』. 전주: 전주대학교 출판부.
- 양창석 (2011). 『브란덴부르크 비망록: 독일통일 주역들의 증언』. 서울: 늘품플러스.
- 염돈재 (2010). 『(올바른 통일준비를 위한) 독일통일의 과정과 교훈』. 서울: 평화문제연구소.
- 전수진 (1995). 『도이칠란트의 통일』. 서울: 집문당.
- 정일웅 (2000). 『독일교회를 통해 배우는 한국교회의 통일노력』. 서울: 도서출판 왕성.
- 주도홍 (1999). 『독일 통일에 기여한 독일 교회 이야기』.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 _____ (2006). 『통일, 그 이후』. 서울: IVP.
- 최용준 (2006). 『하나됨의 비전』. 서울: IVP.
- 최현범 (2014). “평화통일을 위한 교회의 역할.” www.theoslogos.com/news/articleView.html?idxno=263
- Bonhoeffer, D. (1934). *Kirche und Völkerwelt*. Auf der Ökumenischen Konferenz am 28. 8. 1934 in Fanö/Dänemark
- Diakonie-Jahrbuch 90. “Das Interview. Neue Gestalt.” 115-117.
- Führer, C. (2012). *Und Wir sind dabei gewesen: Die Revolution, die aus der Kirche kam*. Berlin: List Taschenbuch. 최용준 역. (2015).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있었다: 교회에서 일어난 뜨거웠던 무혈혁명』.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 _____ (2013). *frech - fromm - frei. Worte, die Geschichte schrieben*. Evangelische Verlagsanstalt; Auflage: 2. Aufl.
- Heidingsfeld, U-P. (1993) Die “besondere Gemeinschaft” der Kirchen-Stabilisierung der DDR? in: Trutz Rendtorff(Hg.), *Protestantische Revolution?*, Goettingen, 98-100.
- Kohl, H. (1998). *Ich wollte Deutschlands Einheit*. 김주일 역. 『나는 조국의 통일을 원했다』. 서울: 해냄출판사.
- Kremser, H. (1993). *Der Rechtsstatus der evangelische Kirchen in der DDR und*

- die neue Einheit der EKD*, Tuebingen. 85-86.
- Loest, Erich. (1997). *Nikolaikirche* dtv; Auflage: 1.
- Mayer, Thomas (2014). *Der nicht aufgibt*. Christoph Wonneberger - eine Biographie Evangelische Verlagsanstalt. 「포기 않는 자」. 우리민족교류협회. 2015.
- Scheuch, E. K. & Scheuch, U. (1992). *Wie Deutsch Sind Die Deutschen?* 김종영 역. 「독일 통일의 배경」. 서울: 종로서적.
- blog.naver.com/PostView.nhn?blogId=kimyyn&logNo=20131323557&viewDate=¤tPage=1&listtype=0 (검색일 2015. 1. 11. 16:30)
- <http://www.nikolaikirche-leipzig.de/englisch-topmenu-100/63-the-events-in-fall-1989/64-the-events-in-fall-1989> (검색일 2015. 8. 10. 18:30)

Abstract

The Unification of Germany and the Role of the Church:
focusing on Rev. Christian Führer

Yong-Joon(John) Choi (Handong Global University)

This article deals with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unification of Germany and the role of the church focusing on the thought and ministry of Rev. Christian Führer who was the senior pastor of Nikolai church in Leipzig. First of all, the life of Führer is dealt with in five stages. Then Nikolai church is seen as the symbol of peace in three aspects. After that, the five processes are investigated how the peace prayer meeting was developed into Monday demonstration and finally brought about the peaceful revolution of unification. Here Führer's thought of peace is more deeply analyzed. Furthermore, the special relationship between the west and east German protestant churches is discussed to demonstrate how they made a crucial contribution for the unification of Germany. In conclusion, three lessons that Korean society and church can learn from Führer are presented.

Key Words: German unification, German protestant church, Nikolai church, Prayer for peace, non-violence